마음책 다시 읽기 부처님의 감정수업 깨어있음이 진정한 평화

▶ 한줄 요약
공덕을 쌓는 인욕수행을 막는 것은 자기 자신

분노 바이러스 백신을 맞자



너 때문에 깨진 평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기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힘도 넘치고, 마음도 너그러워져서 하루가 행운으로 가득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수 같은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평화는 그렇게 깨져버립니다. 나 vs 너, 과연 평화를 깨버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며
그들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되나니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욕을 수행하는데
인욕보다 더 좋은 수행은 없기 때문이라네.
만약 내가 자신의 결함 때문에 적에 대해
인욕하지 못한다면
공덕을 쌓는 인욕 수행을 막는 것은
적이 아닌 우리 자신이라네. [6:102-6:103]

명상센터에 가면 흔히 일어나는 작은 다툼들이 있습니다. 그 다툼의 원인은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니 조용히 움직이고, 기침도 작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을 만드는 이들은 대부분 초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이 조금이라도 무르익은 사람에게 외부 소음이라는 장애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적절한 수행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집중 수행을 할 때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외부적 소리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것에 반응하는 마음 때문일까요? 1차 자극, 2차 자극 기억나시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마음의 작용 때문이지, 외부적 자극 때문이 아닙니다. 2차 자극에서 싫은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도 조용하면 좋겠다는 집착과 시끄러운 자극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에 불만을 느껴서 원망할 대상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산만한 것이 오직 자신의 책임이고, 자신의 힘이 부족해서 분노에 잡아 먹혔다는 진실을 인정하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으니까요.

적이 인욕이라는 공덕을 쌓는 원인이라면
그가 없으면 수행할 원인이 없는 것이고
그가 있으므로 이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그가 우리 수행의 장애라 하는가.
[6:104]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오류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방심하는 순간 고통을 경험하면 가해자 때문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착각을 근거로 원망과 분노는 차곡차곡 쌓이는데, 해결되지 않아 썩어버린 감정의 고름들은 내 마음을 오염시키고 결국 나를 고통스러운 번뇌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가해자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진실은 이렇지만 그를 가해자라고 착각하는 입장에서는 진실이 그 반대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실을 거꾸로 받아들이는 우치, 집착, 그리고 분노와 그 부산물들은 모두 번뇌라는 팀의 구성원들입니다. 이들로 인해 나를 비롯한 모든 중생은 끝없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욕 수행은 탐진치를 해결해주는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힘이 커질수록 우리는 열반의 고향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공덕을 지니게 하는 인욕 수행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원수 같은 그 사람과 만나지 않으면 가능해질까요? 마음을 평화롭고 즐겁게 해주는 이들과 함께하면 가능할까요? 물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때때로 인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난이도는 원수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인욕 수행은 우리가 가해자라고 믿는 그 사람과 접촉할 때 가능합니다. 열반으로 되돌아가고자 노력하는 수행자들에게 있어 그 사람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원수 없이는 이 위대한 인욕의 공덕을 쌓을 기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의 힘 속에 싹트는
분노에 대한 마음 저항
공덕 회향의 의미 지녀

분노 바이러스의 백신

깨침병에 걸린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깨달음과 수행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남들에게 이를 강요하고, 기준대로 살지 않는 이들을 경멸하기도 합니다. 탐진치를 줄이는 것이 수행인데 이에 집착하여 어리석게 분노하기 때문에, 그들은 차라리 수행을 안 하는 게 좋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이 깨침병에 걸린 사람들은 수행을 핑계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처에서 눈에 거슬리는 상대를 만나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깨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행에 방해된다는 이 핑계는 공덕의 원천을 부정하고, 나아가 위대한 공덕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기회 자체를 막습니다. 그러니 수행자는 이 생각의 오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때맞추어 나타나는 걸식은
보시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듯이
계를 주는 것이 계를 받으려는 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
세상에 구걸하는 이들은 많지만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은 드무나니
내가 해를 끼치지 않으면
누구도 나에게 장애를 가하지 않기 때문이라네. [6:105-6:106]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보시바라밀의 공덕을 쌓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여기에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논리로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들이 없으면 나는 인욕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는 논리가 이해되지 않거나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라는 감정의 찌꺼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인욕바라밀의 기회는 매우 희유합니다.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요즘 묻지마 폭행 사건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상식선에서의 모든 일은 그저 작용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즉, 누군가가 나에게 인욕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원한의 묶임에 의한 반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의 요소를 제공하지 않는 한 해악을 당하는 경우는 매우 적고, 강렬한 인욕 수행의 기회도 적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저지른 업력의 폭풍에 휘말려 그는 나에게 해악의 반작용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업력이 그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는 이 업력과 분노의 피해자입니다. 그는 내게 인욕의 기회를 제공해준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기회를 제공하고 다시 그 업력으로 인해 미래에 피해를 볼 것이기에 위대한 희생자입니다. 만약 내가 이 기회를 살려 열반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는다면 그는 한 명의 부처님을 탄생시킨 고귀한 성인의 어머니가 됩니다.

원수를 만나는 기쁨

청주 용화사에서 이 인욕품을 강의하고 끝낼 무렵에 저는 이런 축원을 자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기 전까지 꼭 화나는 일들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가 덜 되었을 때 원수를 만나면 우리는 분노의 감옥에 깊숙하게 갇힙니다. 하지만 분노를 다룰 준비가 충분히 될 때 원수를 만나면 외나무다리는 우리를 행복으로 건너가게 하는 교각이 됩니다.

용서는 그가 아닌 내 행복을 위해 실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삶의 질을 높여주고 즐겁게 만듭니다.

갑자기 집안에 나타난 보물처럼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적들이 나타나 우리의 수행을 돕고 있으니
우리는 적에 대해 기뻐해야 하리라. [6:107]

현대인들이 가장 반가워하는 사람은 택배 아저씨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선물 같은 물건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배우기를 희망하는 이들은 삶에서 종종 등장하는 택배 아저씨 같은 원수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택배 아저씨와 그가 가져다주는 물건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원수와 그가 가져다주는 인욕의 기회를 구분하는 것에 써 보세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는 속담처럼 원수는 종종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는 우리에게 상자를 하나 주는데, 이 상자 속 내용물의 명칭은 내가 열어보고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를 용서하지 못했거나, 용서할 생각조차 없다면 물건은 시한폭탄이 됩니다. 하지만 용서하고자 한다면 상자는 위대한 열반의 공덕이 됩니다. 지금까지 선물 받은 상자가 시한폭탄이었다면 그것은 원수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는 힘이 미숙했던 것입니다. 돼지가 진주 목걸이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듯, 중생은 원수라는 택배 아저씨의 고마움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와 남 그리고 세상을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거대한 해방감을 맛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던 분노의 감옥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해탈의 감각은 정말 큰 공덕을 지니고 있는데, 이 공덕은 나 혼자 가져야 할까요? 불교에는 '회향'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기도와 수행을 통해 생긴 공덕을 어느 곳에 쓸지 결정하는 말입니다. 〈자비도량참법〉에서는 이 회향을 친척에게 음식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해서 회향은 '공덕의 계좌이체' 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우주에는 공덕의 통장이 있습니다. 선행과 기도 그리고 수행으로 공덕의 통장잔고는 높아집니다. 이 높아진 잔고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수행하고 중생을 구제할 힘과 열반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을 구입해야 합니다.

저자 : 원빈 스님 〈이층버스 펴냄〉

